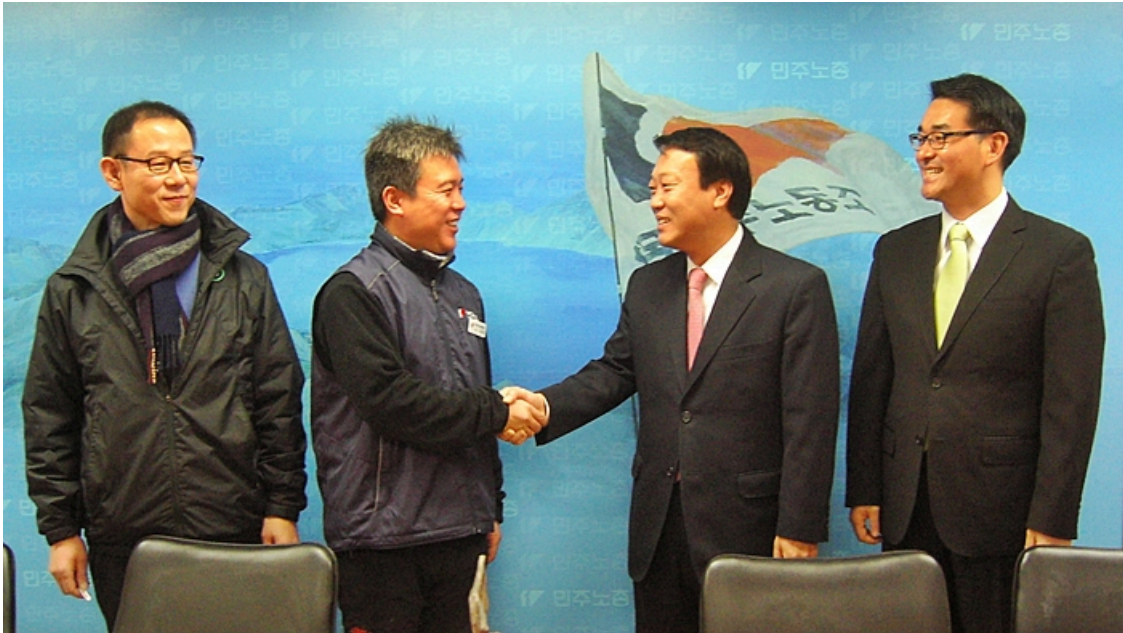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만남

홍미리 기자 | 승인 2010.12.10 13:49

## 김위원장, 연내 진보양당 전현직대표 6인·민주노총 등 3주체 모임 제안



▲ 김영훈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를 만나 진보정당 통합과 새로운 진보운동을 다짐했다. 사진=노동과 세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를 만나 진보정당 통합과 아울러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비롯한 새로운 진보정치운동에 힘을 쏟자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을 방문한 조승수 대표에게 “조합원들로부터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고 힘있는 진보정당 통합과 정치운동을 위해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노동자 정치운동 1기를 이끈 전현직 진보정당 대표 6인과 민주노총 등 3주체 연내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손잡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보정당통합의 닳이 올랐음을 대중적으로 보여준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대표를 만난 내용을 전하고 “진보정당 통합과 새 진보정치를 위해 진보진영 제대표자 정례회동을 연내에 만들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고 답변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한 조 대표는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노동이 없는 복지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노동을 중심에 세워야 진보정당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의 합의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아래로부터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양당의 온도차는 당연하며 논의의 발전과정일 것”이라고 말한 김영훈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문제이며 양당과 민주노총이 그 주체가 돼 광범위한 진보세력을 묶어내야 한다”면서 “그 결과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일 것이며 우리 조합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내 양당의 전·현직 대표(진보신당 조승수, 노회찬, 심상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권영길)와 민주노총 3주체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3주체를 연내에 모으고 이를 구심으로 사회당 등 제 세력들과 함께 한다면 국민도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영훈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된 진보정당 대표들의 만남과 통합논의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연내 진보양당 전현직대표들과 민주노총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사진=진보신당

이에 대해 조승수 대표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만남 있어야 하며, 다만 양당이 중심이 되는 것은 자칫 여타 세력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무엇보다 앞서 말한 3주체가 먼저 합심하면 제 세력과의 연대통합이 보다 심도 깊게 속도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도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보정당 통합이 중대한 과제임을 제기했다.

정치위원장은 “현장의 기대가 크고 이번 진보정당 간 논의가 실패하면 진보정치에 대한 지지를 더 이상 현장에 호소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만 미약한 민주노총 정치활동을 시급히 재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 건설 이전에 우선 양당 선통합 선언이 필요하고 이는 현장 정치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노총 현장 분위기를 이해하고 현장에서는 속도감 때문에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함도 필요한 문제”라면서 “진보신당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되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이 응원하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은 한 몸과 같다”면서 “100년 정당을 세워야 하는 만큼 신중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연내에 양당 전현직 지도부와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일단 고비를 넘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대표해 중재단을 꾸려 애써 준 조승수 대표를 향해 고마움을 표했다. 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현대차 노사관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면서 “현대차 교섭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도 “야당의 중재 노력에 오해가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도 했지만 교섭이 시작돼 다행”이라고 답했다.

40여 분 간 이어진 오늘 회동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정희성 부위원장, 강승철 사무총장, 김태일 정치 위원장, 정호희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또 진보신당에서는 조승수 대표와 박용진 부대표, 심재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김영훈 위원장과 조승수 대표는 진보정당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치운동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끌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